

국내 주식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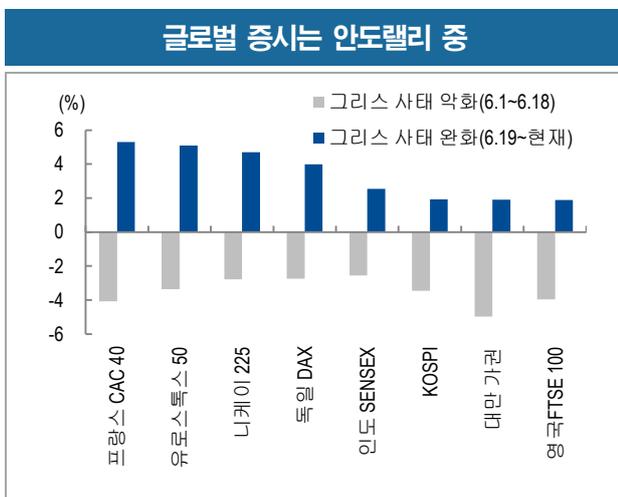
끝나지 않은 유동성 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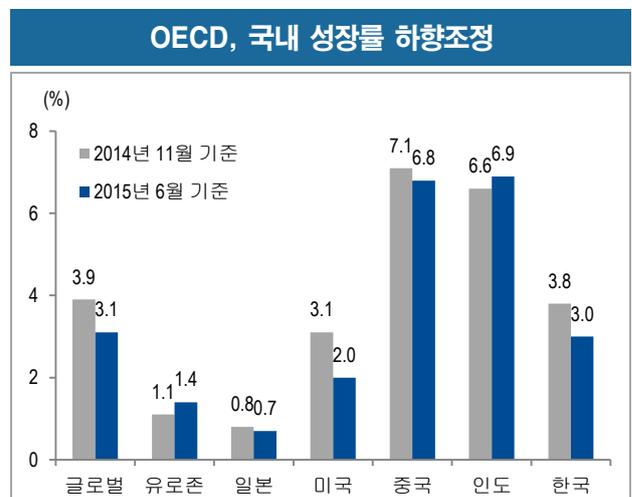
1.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

KOSPI, 60일 이동평균선 저항과 돌파의 기로

- 그리스 사태 해결 기대감과 경기지표 개선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가 안도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나스닥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유로스톡스50지수가 4일 연속 상승하며 지난 5월말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그리스 우려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이다. 특히, 전일 중국 제조업 지표 개선에 이어 유로존의 경기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의 6월 마켓 제조업 PMI가 전월(52.2)대비 상승하며 작년 4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서비스업 PMI 역시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 속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점차 완화되는 양상이다.
- 다만, 국내 증시는 지난 6월 초 이탈했던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대에 근접하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추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측면에서 메르스 여파로 내수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OECD 및 세계은행이 국내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실적측면에서도 6월 들어 모멘텀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 2. Policy Mix에서 답을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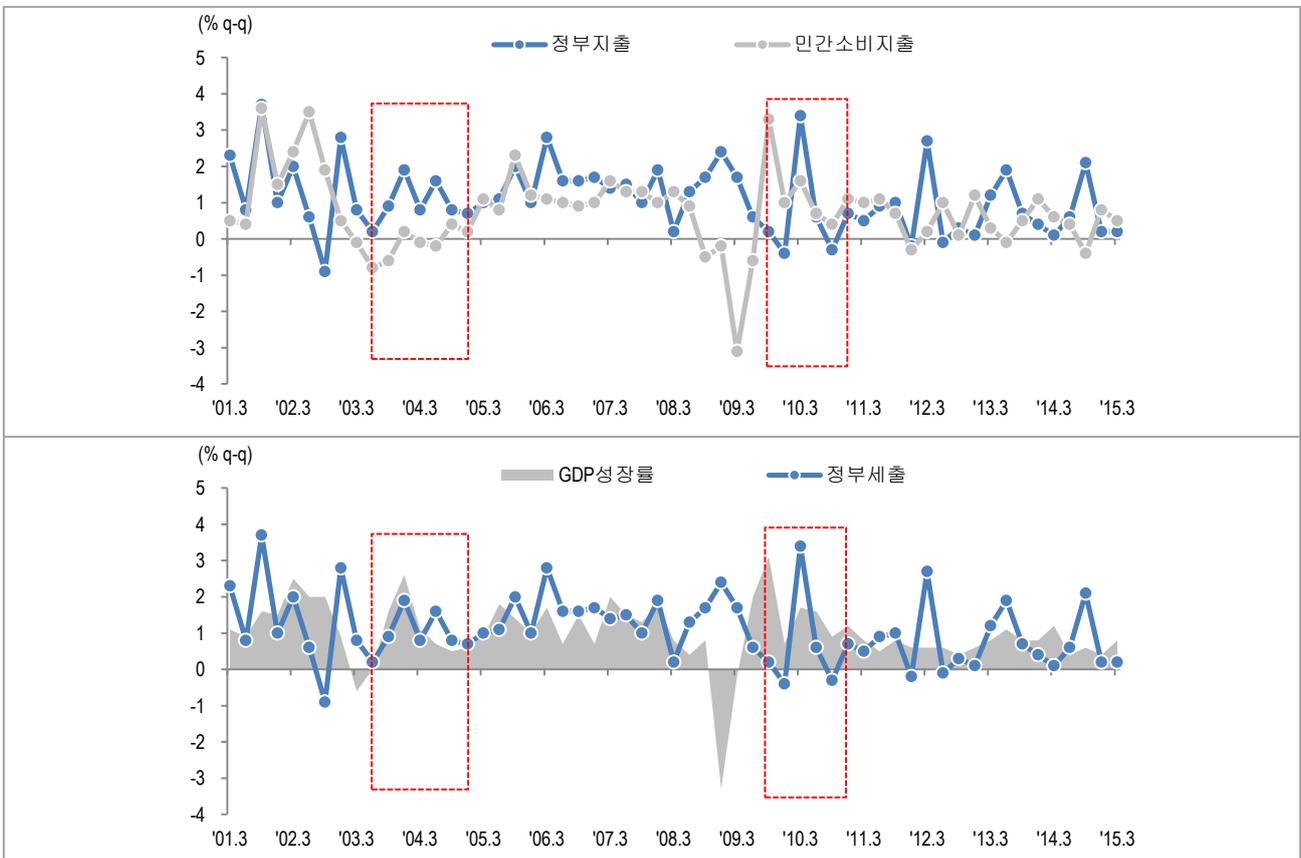
###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기대

- 일단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등 확장적인 정부 정책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한 국은행이 3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국내 통화량(M2) 증가율이 1월 8%(y-y) 수준에서 4월 9%로 확대되었는데, 6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효과까지 감안했을 때 하반기 시중 유동성은 더욱 확대될 개연성이 높아보인다. 정부의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과 맞물릴 경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국내 증시의 하방경직성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 과거 추경예산 편성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는 2001년 이후 민간소비가 크게 둔화되는 국면에서 총 11번의 추경을 편성했으며, 2003년 사스 때와 2009년 금융위기 및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도 소비지출이 최저수준으로 내려갔으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당시 추경예산 시행 이후 민간소비지출 및 국내 성장률이 함께 회복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추경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전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추경규모를 대략 10조원 정도로 추산하였는데, 이는 2009년(28.4조원)과 2013년(17.3조원)에 이어 세번째로 큰 규모라는 점에서 국내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시중 유동성 확대 추세 속에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경 기대감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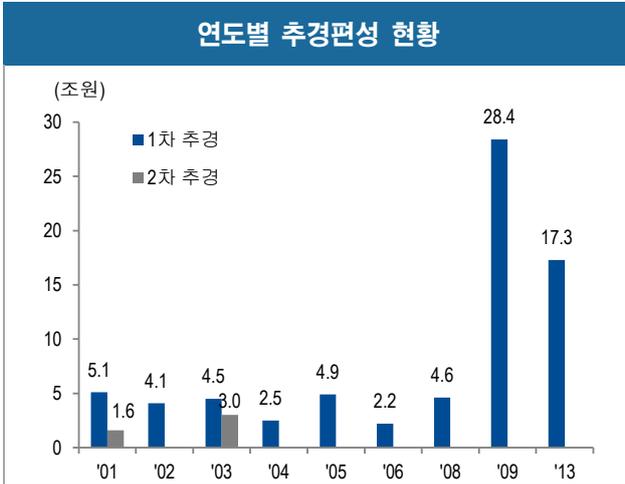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잠깐 상식, 알고 갑시다!

### 추경예산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료: 기획재정부,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 ‘추경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을 줄여 부르는 말로 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가리키며, 국무회의 및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또한 추경규모는 세출 증가 및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재원 조달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증/감액분과 세입예산의 증/감액분까지 포함한 규모를 나타낸다.
- 2001년 이후 정부는 총 11번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01년과 2003년에는 1차, 2차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 3.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관점 유지

### 그리스 채무협상 결과와 정부 정책효과 기대

- 오는 24일 유로그룹 회의를 거쳐 25일 채권단의 수장(ECB Draghi 총재, IMF Lagarde 총재, EU Juncker 집행위원장)들과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회동할 예정으로 그리스 채무협상이 중대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의 새 협상안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극적인 타결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정부의 추경 편성 등 추가적인 정책효과 기대감이 국내 증시의 하방경직성을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OSPI 6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 속에서도 돌파 시도 역시 꾸준히 전개되는 안도렐리 국면이 예상된다. 이에 2/4분기 실적시즌 진입 및 시장유동성 확대 기조 등을 감안하여 실적개선주 및 낙폭과대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